



민선 7기 전남도가 역점 추진해 고흥-완도 국도 승격,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총 2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분야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돼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개통한 뒤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고흥간 '백리섬섬길'(해상 교량 5개) 전경. <전남도 제공>

# 해저터널까지...전남 도로망 SOC 새 시대 연다

전남도의 도로 분야 SOC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 국가계획 반영 성과를 거두면서 민선 7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섬과 오지가 많은 전남지역 특성 상 국가계획에 반영된 핵심 도로망 건설이 가시화될 경우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남해안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로 분야 국가계획에 ▲고흥-완도(42.4km) ▲고흥 봉래(6.1km) 등 2개 지구 국도 승격이 이뤄졌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설(7.31km) ▲신안 추포-비금 신설(10.41km) ▲고흥 영남-팔영 개량(14.0km) ▲신안 신석-단곡 개량(9.12km) ▲완도 신지-고금 개량(7.24km) ▲무안 마산-송석 개량(7.24km) ▲영암 금정-유치 개량(10.56km) ▲장성 동화-서삼 신설(5.98km) ▲나주 금천-도암 신설(12.0km) ▲담양 고서-창평 신설(5.59km) 등 10개 지구(2조6천867억원)가 반영됐다.

올해 최대 규모 국가계획 반영으로 도내 간선 도로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물류 등 수송 능

내로 단축할 수 있어 획기적인 이동 편의 개선이 예상된다. 또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요 지점에 위치한 만큼 사업이 준공되면 동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과의 교류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SOC 중 핵심 사업은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총연장 7.3km, 해저터널 5.93km, 사업비 6천312억원)은 1998년 남해안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영·호남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의를 채택, 전남·경남지사 공동건의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한 결과,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됐으며 20여년의 도전 끝에 국가계획 반영에 성공했다.

그동안 여수에서 남해까지 육로로 1시간 20분 이상 돌아가야 해 불편이 컸지만 해저터널이 뚫리면 10분 안팎의 직선 단거리로 연결된다. 또 지난해 개통한 여수-고흥 백리섬섬길과 연결돼 부산-목포 해양관광 도로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된다.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총연장 10.41km, 사업비 3천827억원)의 경우 신

## 5차 국도·국지도 계획 사상 최대 2조7천억 반영 민선 7기 고흥-완도 20년 만에 국도 승격 주목 오늘 '전남 SOC 르네상스 실현' 보고대회 개최

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량한 도로 선형으로 인한 만성 교통 정체해 해소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관광객 등 이용자 교통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 도로 교통망은 고속도로 6개 노선, 일반국도 14개 노선, 국지·지방도 45개 노선 등 총 65개 노선으로 전국 도로의 12.9%를 차지한다. 하지만 섬과 오지가 많은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 포장률 역시 전국 평균 대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2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계획 반영은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전남도의 SOC 국가계획 추진 이후 국도 승격이 성사된 것은 민선 7기가 최하다.

고흥 금산면에서 완도 고금면을 연결하는 고흥-완도 간 국도 27호선 승격은 2005년 말부터 건의를 시작한 전남도의 숙원 사업이다. 총연장 42.4km 중 미개설 구간인 고금도-평일도-금강도-거금도(27.4km)에 총사업비 9천8억원을 투입, 해상 교량 5개를 건설하게 된다.

기존 내륙 구간 이용 시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할 경우 30분 이

안 다이아몬드제도 완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섬 주민 열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추포-비금 연도교가 개통되면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2시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50분 이내로 단축돼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 지역 주민 편의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 터키 착공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고흥 영남-팔영 구간(총연장 14km, 사업비 691억원)은 기존 노선의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준공되면 여수-고흥 간 연도교(백리섬섬길)와 연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까지 통행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신안 신석-단곡, 장성 동화-서삼, 나주 금천-도암, 완도 신지-고금, 담양 고서-창평, 무안 마산-송석, 영암 금정-유치 등 4차로 신설·시설 개량 사업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대거 반영돼 도내 간선망 확충·지역 경제 활성화

를 이끌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국가계획에 많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무엇보다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민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5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건설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슬로건으로 전남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김재정기자

## 담양·보성·강진·영광 등 4곳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전남도는 4일 "제28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4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담양군 '슬로시티로 함께 사는 창평 달팽이마을' ▲보성군 '걸어서 보성속로, 젊음의 활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보성' ▲강진군 '응답하라! 병영 600' ▲영광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광 뉴트로(Newtro) 재생'이다.

2025년까지 국비 320억원과 지방비 215억원, 부처연계사업비 226억원, 기금 34억원, 민간투자 2억원, 지자체 사업 49억원 등 총 847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통해 후보 사업 4곳을 선정했다. 8월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증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 사업 4곳 모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어울림센터 조성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남도는 지금까지 19개 시·군 41곳(8천97억원)이 선정돼 2곳을 완료하고 39곳에서 기반시설 정비,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공간조성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재정기자

Panasonic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6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 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개시

퍼스트클래스의 품격,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렌탈로 부담없이 경험해 보세요!  
렌탈 계약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4년  
무상 A/S  
1년 + 3년

REAL PRO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 최옥수 전 무안산림조합장,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 임명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컨트론타워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목표로 출범한 균형발전특별위는 전국 8개 권역 15개 지역본부, 5개 추진단, 비례위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본부는 서삼석 본부장과 최옥수 전 조합장,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인 윤명희 전남도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균형발전특별위 위원 중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주요 지방의원 등이 아닌 경우는 최옥수 전 조합장이 유일하다. 같은 기초 지역에서 본부장과 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균형발전특별위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대선 정책 공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10대 과제인 ▲민간기업 지방 이전 ▲지역 대학 육성 ▲농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확충 ▲균형발전 예산 증가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장과 위원 중심의 국민소통간담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최 전 조합장은 "중앙당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서삼석 국회의원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적극 도와 호남을 비롯한 국토의 균형발전, 무안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집권여당의 힘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소임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후성기자